

-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 오직 여호와와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제목 : 이삭 이야기 성경: 창세기 26장 17-25절

Tag:

17 이삭이 그 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18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뺏던 우물들을 다시 뺏으니 이는 아브라함 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19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20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섹이라 하였으며

21 또 다른 우물을 뺏더니 그들이 또 다투므로 그 이름을 싯나라 하였으며

22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뺏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23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24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25 이삭이 그 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뺏더라 (창26:17-25)

이삭은 조용한 사람이다.

아브라함은 개척자이고, 야곱은 전형적인 유대인이고(이스라엘 사람;악바리. 욕심쟁이, 거짓말쟁이, 처절하게 사는 사람, 삼성맨, 현대 맨, 매우 한국적임), 에서는 건달 사냥꾼이다.

이삭은 가족을 귀히 여기는 가정적인 사람. 이삭은 평생 리브가만

사랑한 사람. 범생이.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했다는 것을 잊지 말라.

사람은 천성대로 살아간다. 모든 인생에게 고락은 있다. 다만 지나고 나면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하고 후회가 남는다. 후대에 사는 사람들은 선대에 살았던 자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자신의 삶을 해석하고, 더 지혜를 배우고 세월을 아껴서 더 복된 삶을 누리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삭은 흉년을 당하여(가나안에는 당시 정기적으로 흉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지금은 치수가 잘 되어 있음.) 그랄로 가서 살게 되었다(블레셋 사람의 지역). 아마 그랄지역은 상대적으로 흉년의 영향을 적게 받았던 지역이었을 것이다.(아브라함도 역시 그랬다. 하나님은 그들이 애굽으로 가게 되는 것을 막으셨다.)

블레셋 사람들은 드센 사람들이었다.(해변 사람) 아브라함도 그랬지만, 이삭도 자기 아내로 인해서 죽임 당하게 될 것을 두려워하였다.

그는 아내를 (오촌)동생이라고 속였다. 아브라함때도 그랬지만, 그랄 지역 왕 아비멜렉은(블레셋 사람) 아브라함 가정의 여인들을 좋아했다. 이삭 당시 아비멜렉도 호시탐탐 리브가를 노렸다. 그러다 우연히 이삭과 리브가가 껴안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그리고 왜 자신을 속였는지를 책망하게 되고, 이삭의 사정이야기를 듣게 된다. 아비멜렉은 이삭과 리브가를 위해서 특별 조치를 한다.

이 특별조치로 인해서(정치적 안정) 이삭은 본격적으로 자신이 본업인 농부의 일을 힘있게 추진하게 되고, 농사에 재능이 있는 이삭은 크게 성공하게 된다. 아비멜렉으로서는 자기 나라의 모든 부를 가져가는 이삭이 미웠기에 아브라함이 봤던 모든 우물을 막아버리고 이삭을 쫓아냈다. 이삭은 하는 수 없이 인근 골짜기로 가서 우물을 파기 시작했다. 농사에 필수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러자 그 근방 사람들이 몰려와 우물을 빼앗았다.(정치적으로 불안정한 지역임) 이런 식으로 세 번이나 당하다가 마침내 르호봇에 이르러 분쟁이 그쳤다.(정치

적으로 안정된 지역, 그러나 사막 지역이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는 불안한 지역임.)

성경에는 르호봇이 넓은 땅이고, 이삭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고 싶어 했으나, 아마도 지속적인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그는 다시금 브엘세바로 이주하게 된다. 아마 광야 사막지역이어서 그렇지 않았나 싶지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를 브엘세바 쪽으로 몰았을 가능성도 있다. 아무튼 르호봇은 현재까지 정확한 지역을 짐작하지 못한다. 아무튼 더 북쪽으로 이주하게 되어 브엘세바에 이르게 된다. 이 지역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지역이었다.

역시 그곳에서도 이삭은 바쁘게 우물을 팠다.

그러자 아비멜렉이 찾아왔다. 똑같은 사건이 아브라함 때도 있었다. 그들이 찾아와서 언약을 맺기를 요청하였다. 이때 아훗삿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성경에 딱 한번 등장하는 이름인데 그 뜻이 ‘소유’다. 아마도 블레셋과 이삭가문 사이에 거주지에 대한 조약처럼 보인다. (각자의 소유지를 인정하고 불가침조약을 맺은 셈이다. 이삭으로서는 자신과 후손의 영원한 소유지라는 암시가 들어있는 조약인 셈이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삭 가문의 왕성함 때문에 위협을 느꼈기 때문인데, 이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 한다는 일종의 싸인으로 이삭은 해석했다.

이삭아, 이곳은 네 아비때부터 내가 준 땅이니 이곳에서 복 받고 살렴.

그 증거로 그날 또 우물이 터졌다. 그래서 이삭 가문은 그때로부터 애굽에 이주할 때까지 그곳을 중심으로 살아가게 된다.

1. 하나님은 이삭에게 농업의 재능을 주셔서, 그가 농사할 때 복을 받게 되었다. 재능 개발이 부요함의 핵심이다.
2. 이삭은 아비멜렉의 수하에서 잘 살아 보려고 했지만, 결국 실패하

고 하나님의 품으로, 하나님이 지정하신 곳에 이르러 잘 살게 된다.
재능개발도 보호를 받을 때의 이야기다. 국가를 소중히 여기자.

3. 이삭은 분쟁을 온유함으로 풀어냈다. 야곱과 에서와 다른 양상이지만, 각자의 성품대로 살아가며 어찌면 가장 바람직한 성품이다.
4. 하나님은 하나님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항상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하시고 특별히 보호 하신다. 아멘.

<찬양예배>

제목 : 두 아들 이야기 성경: 누가복음 15장 11-32절

Tag: 리더훈련

11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12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
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13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
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14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15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
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16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
라

17 이에 스스로 돌아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18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19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
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20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21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
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22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
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23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24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25 만이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26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대

27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으며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됴므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28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29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30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 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31 아버지가 이르되 애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32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눅15:11-32)

두 아들의 전략

1. 둘째 아들의 전략

가. 금수저 전략 (유산 미리 빼먹기 전술, 부동산을 동산으로 바꾸기 전술. 급전을 노리는 것이었기에 엄청난 손해 감수)

나. 먼나라 전략 (허세 부리기 전술, 넘어오는 사람은 없었고 도리어 허세녀를 만났지 않았을까 사료됨. 설상가상 시기를 잘못 선택해서 망하게 됴.)<https://www.instiz.net/pt/334530>

다. 불법체류 전략 (막장 허드렛일 전술)

라. 뺑뺑기(돈 뜯기) 전략 (돼지의 먹이를 탐하는 전술)

마. 결국 노숙생활자가 됨 (사회보장제도가 없어서 비로소 회개하게 됨)

바. 역이민 전략 (걸어서 집으로 전술)

사. 철저한 회개 전략 (자기 부정 전술, 나는 아들이 아닙니다. 아들이라 할 수 없는 놈입니다.)

2. 첫째 아들의 전략 (전략이라고 할 수 없는 전략)

가. 순종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아버지가 시켰다고 믿었을 뿐, 사실은 하고 싶지 않은 일)

나. 경건 (율법주의적 경건. 인생의 즐거움과 행복을 거부함)

다. 무소유 (경제원리를 깨닫지 못함, 돈에 대한 막연한 거부감, 소유에 대한 개념 없음)

라. 멘붕(멘탈 붕괴, 가치관 혼돈, 아버지에 대한 배신감,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는 것을 거부함.)

3. 현명한 둘째 아들의 전략

가. 자본 전략 (부동산과 동산에 대한 이해와 적절한 이용)

나. 먼나라 전략, 이민전략 (보다 나은 정부를 찾아 나섬. 현재 보유 재산을 이용해서 거래했을 경우 현저한 수익이 예상될 경우)

다. 뽕뜯기기 전략(남들이 나를 통해서 이익을 보게 하기. 그들이 나에게 오면 그들이 이익을 본다. 그들이 이익을 볼 수 있도록 내가 재화를 쌓아 놓는다. 나의 재화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 농부 전략. 재화란 하나님께서 태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료로 주시는 것. 나름대로 그 방법을 터득하는 것이 뽕 뜯기는 전략)

라. 스스로를 위해서 노후대책 마련하라. 저절로 굴러가는 산업 만들기.

마. 귀국 본능(안전하고 편리하고 익숙한 곳으로의 귀향)

바. 합리적인 분배 기술 익히기. 아주 어려움. 누구에게 나의 재화를

나누어 줄 것인가?